

**2023신년
메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6~17절>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 (히로시마교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고후 5 : 17b)

새해에 듣기 딱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말씀으로 삼고,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우리 자신 역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a)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바울이 16절에서 대비적으로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 라는 말을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육신을 따른다” 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능력을 가리키며 “인간의 차원에서”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차원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인간을 초월한 차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인간을 초월한 차원에 있다” 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에게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

다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 머무르는 이전의 삶의 방식에 아닌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새로이 제로에서 창조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사람에게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많은 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사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말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평소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같은 말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안테나를 세워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아 감시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國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KCC
CCJ
와

선교협약 체결 25주년 기념집회 개최

관동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주년 강연회도

11월17일(목) 나고야교회에서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의 선교협약 체결 2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집회가 열려, 대면과 온라인 합쳐 양 교단에서 약100명이 참가했다.

기념예배에서는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양 교회의 대표가 일본어, 한국어로 기도, 성경봉독을 하였다. 설교는 CCJ대회 의장 아리가 후미히코(有賀文彦)목사가 <평화의 주님을 보고> (요20:19~23)의 제목으로 하고, 총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공개 강연회는 <역사 은폐와 망각에 대항하여> -관동 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교회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테마로, 특별 강사로 김성제목사(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총간사)가 강연을 하였다.

약100년 전의 관동 대진재 때에 「不逞鮮人」(후테이센진,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조선인이라는 차별용어) 이라고 단정 한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잡아가서 살해하였다. 인재(人災)의 기억을 파헤쳐 망각, 왜곡, 역사 수정에 나타나는 강열한 생각을 제시하였다. 고대 포로기의 <기류민(靑)의 신학>의 시점에서 오늘의 <바벨론> <바벨>과 같은 일본의 현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마주 대할 것인가를, 재일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입관 문제 등, 구체적으로 파헤쳐 주었다.

선교협력위원회에서는 양 교회의 보고와 과제를 나누고, 특히 청년들의 교류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사
회
위
원
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집회 개최



지난 11월 27일(주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 형식으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국 릴레이 집회가 사회 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집회는 이름대로 외기협과 각지에 외기련 및 각 교단체와의 공동 개최로 9회에 걸쳐 매주 연속 개최된 집회였다.

강사는 변호사인 고베교회 백승호장로를 초청하여, 스스로의 체험도 포함해 말해달라는 사회위원장의 부탁을 잘 들어 주시어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왜 변호사를 목표로 한 것인가의 동기도 말씀해 주었으며 또한 재일의 법적 지위의 변천과 함께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가자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하는 많은 것을 배운 집회였다. 단지 조금 섭섭한 것은 참가자가 30명 미만이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보고 : 이근수 목사)

KP
CC
CK
J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의 선교협의회 개최

KCCJ에 재일 중국인 선교를 위한 방안에 협력

지난 2022년11월28일-30일, 본 총회와 오랫동안 선교협력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PCK, 이하PCK)와의 선교협의회가 큐수의 벳부에서 개최되었다.

PCK에서는 총회장 이순창목사를 비롯하여 사무총장 김보현목사 등 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KCCJ에서는 총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와 총회 임원 및 선교위원장, 각 지방회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KCCJ벳부교회(조현규목사) 방문을 시작으로 협의회에서는 김병호총간사가 선교협약 문서를 확인하면서 KCCJ의 역사와 선교적 현황 및 KCCJ를 섬기고 있는 PCK과송 선교사의 동정을 보고하고 이어서 선교위원장 조영철목사가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민족의 현황과 그들을 향한 KCCJ의 선교적 역할의 필요성을 발제하면서 다민족 선교를 위한 인재를 PCK에서 보내주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0만명이 넘는 재일 중국인을 위한 중국어 예배를 KCCJ교회내에 개설하기 원하는 교회가 있어, 근간에 중국의 종교정책에 의해 중국본토에서 추방되어 나온 선교사들 중에 KCCJ교회와 협력하여 중국인 선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CK에서 발제자로 나선 에큐메니칼 코디네이터 채송희목사는 '글로벌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 라는 테마로 세계적인 이주민의 동향과 디아스포라 선교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선교사 파송국과 수용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가운데 PCK총회의 선교신학이기도 한 현지 교회와의 동반자적인 관계속에서 인적, 물질, 지적인 지원과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연대하는 일에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임진왜란 당시 출병 기지였던 카라즈시(唐津市)의 나고야성터(名護屋城跡)와 박물관, 그리고 통일교가 건설하다가 중단한 환일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후쿠오카교회(김인과목사)를 방문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讚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관동지방교회

니이가타교회 헌당식 거행 고절 32년에 걸친 노력이 드디어 결실

2022년 11월 23일, 관동지방교회 니이가타교회에서는 교회당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이재익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규학목사(전 감독회장)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왕상8:12~21)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니이가타교회는 1990년, 민영기목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일본기독교단 히가시나카도오리교회의 CS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1992년부터 임대 예배실에서 30년간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번에 이재익목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모금활동, 니이가타교회 신도들의 기도와 헌금, 전국교회와 일본교회의 지원의 열매가 맺혔으며,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제일교회의 지원에 의해 대지 100평, 연건평 160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폼까지의 긴 여정을 걸어왔다.

총비용이 4,920万円, 리모델링공사는 동경중앙교회 최홍복집사(전 니이가타교회 신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마무리되었다. 니이가타 지역의 선교적 거점으로서 니이가타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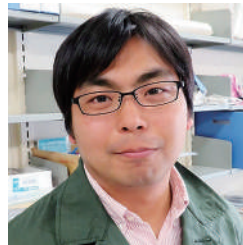


교역자·장로

교역자·장로 수양회 개최 '버거운 삶'이라는 테마로 워크숍



양양일 장로



김경호 집사

11월 23일(수, 휴일) 오후 1시부터, 교육위원회 주최로 zoom을 통한 수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48명이 참가했다. 제 1부는 양양일 장로(오사카교회, 신도위원장)가 <버거운 삶>이라는 테마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로나 소모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제시되며, 많은 참가자들이 또 하나의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병리는 단순히 "봉사의 선행"이라는 생각만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의 구조적 뒷받침이나 모르는 사이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근거한다는 것도 제시되었다. 제 2부에서는 김경호집사(요코스카교회)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마찬가지로 <버거운 삶>을 테마로, 주로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강연이었다. 특히 역대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공개가 압권이었다. 설문에 응한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청년"이라는 한 마디에 묶일 수 없는 다양성, 갈등, 고뇌의 깊이가 드러나 있었다. 제 1부, 제 2부를 통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과제와 동시에 그 영향을 받은 교회가 짊어진 과제들이 떠올랐다. 수양회가 끝난 후에 임의로 남은 분들의 의견 중에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 사회 주변에 처하여 설 자리를 잃은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지역사회와의 알력, 사회파/복음파라는 낡은 구도에 좌우되는 것이 청년들을 갈라놓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개교회에서 충족하기보다는 넓고 유연한 젊은이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등 매우 유의미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지금까지의 수양회 중에서 가장 유의미했다는 의견이나, 이 주제는 교역자·장로에 한정하지 않고 신도 일반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귀중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내년도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위원장 김신아, 변역 교육위원 이상덕)

이단 대책 특별 세미나 개최 일본선교협력회와 공동 주최로

본 총회와 일본선교협력회가 공동주최한 '이단대책 특별세미나'가 11월 27일 주일 오후, 大阪교회에서 卓志一목사(부산장신대학교교수)를 강사로 개최되었다. 安倍晋三 전 일본 수상이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旧 統一教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기독교회와 통일교와의 차이와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학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일본교회와 본총회 소속 지도자들과 교우들, YouTube를 통한 실시간 강의를 담당한 탁지일교수는 故 탁명환교수의 장남으로 한국 사이버 이단 연구의 전문가로서 통일교의 역사와 잘못된 교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심도있는 강연을 하였다.

특히 통일교 2세대로 피해자인 坂野千穂씨가 자신이 일본에서 한국에 가서 당한 통일교의 비리를 고발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탁지일교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계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하는 것과 교회가 이단에 대한 사전교육과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참석하신 많은 일본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요구하면서 성황리에 마쳤다.



탁지일교수를 초청하여 행해진 '이단 대책 특별 세미나'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2023년을 맞이한 전국, 각지방 여성회장 포부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송복희 회장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시는 교회 여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저의 2023년은 시편37: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아울러 전국여성회의 회장으로서는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전국여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합니다.

관동지방여성연합회 김혜진 회장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70주년 기념식을 도쿄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이후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되어준 도쿄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70년동안 하나님께서 관동지방교회 여성연합회를 통하여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고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취를 살펴봄에 희망의 100년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 갈 희망의 행진을 계속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손잡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한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부지방여성연합회 이정자 회장



‘신년 포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 내 속한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중부지방, 8개 교회와 3개 전도소가 이루는 지방. 교회 여성, 그 지방회에 속한 교회를 통해 이어진 여성들, 그리고 연합회. ‘연합’이란 무엇일까? 거기에는 아주 높고 소중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연합’ 이라고 하면 유럽 연합이나 유엔 같은 것이 떠오른다. 그럼 무엇을 위해 국제 사회는 연합할까? 그것은 전쟁, 다툼, 빈곤을 없애고 강대국의 힘을 누르고 약소국을 돕는다. 그런 높은 목적을 갖고 인류는 ‘연합’ 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빈부의 차이가 없고 전쟁이나 다툼도 없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중부지방 여성연합회에는 여성회가 없는 교회/전도소가 5개 있다. 그리고 13명이 있는 임원들의 소속 교회도 4개에 불과하다. ‘연합’ 까지는 너무 멀고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 하지만 새해에는 새 문을 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를 기다린다.

관서지방여성연합회 김인희 회장



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는 13개 교회에 242명의 여성회 회원이 속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며 2022년도 주제를 ‘기도하며 은혜의 씨앗을 뿌립시다!’ 로 정했습니다. 온

라인으로 진행하던 행사들을 조금씩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친교의 장’ 의 소중함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13개 교회 위원들이 모여 개별 교회 여성회 상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 서로 약한 곳을 지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표를 희망과 격려로 삼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지방여성연합회 양율자 회장



2022년은 인원수 제한 속이었습니다만,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35회 정기대회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서부 여성회에서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7월과 10월에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연수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부 지방회는 지역도 넓고 무목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영향으로 성경 말씀에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서 여성회 활동 재개가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만, 2023년은 보다 서로가 관심을 갖고, 개교회의 현상, 기도제목등을 공유하며, 기도하면서,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서부여성회 소식」의 계속,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하고, 서부여성회의 표어 빌립보서 2:2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를 목표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서남지방여성연합회 이호자 회장



2023년도도 전국 여성회의 활동과 굳건히 연계하여, 어린이 지원 활동을 협력하고, 성경 공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활동으로 연결해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년동안 대면으로 마주하는 교제를 빼앗기고,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각 교회 여성회와의 연합과 격려가 다른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대면과 디지털화를 병행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고무하고 함께하는 교제를 소중히 다져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개인의 의견과 각 교회 여성회의 형편을 배려하며, 함께 나누고, 이전보다 더 활발한 교신과 교제를 통해 차세대로 이어가고 싶습니다.